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도

김 동 윤 *

- I. 들머리
- II. 제주에 대한 인식
- III. 제주 뱃길
- IV. 제주의 풍광
- V. 목사의 행차와 관가 주변의 모습
- VI. 경래관의 수탈과 제주인의 삶
- VII. 마무리

국문요약

이 글은 『배비장전』이 조선조 한글소설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를 주무대로 펼쳐진 소설임에 주목하여, 작품 속에서 제주도의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제주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험한 제주 뱃길의 양상,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묘사, 목사의 행차와 관가 주변의 모습, 경래관(京來官)의 수탈과 제주인의 곤궁한 삶의 양상 등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배비장전』 속의 제주도라는 공간은 상투적으로 막연히 제시된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작품 속의 여러 상황과 지명·건축물 등에서 나름대로 리얼리티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소설의 경우도 지역의 눈으로 읽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배비장전』, 제주도, 제주 뱃길, 목사 행차, 경래관, 수탈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I. 들머리

『배비장전(裵裨將傳)』은 판소리 열두 마당 중에서 창(唱)이 유실된 『배비장타령』에서 온 판소리계소설로, 1950년 김삼불(金三不)이 교주한 국제문화관본(일명 김삼불 교주본)과 1916년 간행된 신구서림본(구 활자본)이 대표적인 판본이다. 국제문화관본과 신구서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비장 봉육 후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국제문화관본은 75장의 전사본(轉寫本) 중 59장까지만 택해 교주한 텍스트로, 60장 이후는 문장과 어법으로 보아 후인의 덧붙임이 분명하다고 교주자가 판단하여 제외했으며, 교주자의 주관으로 군말을 삭제한 곳도 있다. 신구서림본은 배비장이 목사의 배려로 정의현감에 임명되어 애랑과 재결합하는 결말 부분이 포함되었으나 현대적 개작의 흔적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말하자면 둘 다 조금씩의 문제를 갖고 있는 텍스트인 셈이다. 이렇게 『배비장전』이 정본(定本)이 불확실한 작품이라는 점은 연구의 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느 특정한 것을 정본으로 삼지 않고 두 가지를 모두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이야기 틀은 신구서림본에서처럼 배비장의 출세담까지를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내용 검토에서는 국제문화관본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것이다.¹⁾

배비장의 존재는 유진한(柳振韓)이 1754년(영조 30)에 엮은 만화본(晩華本) 『춘향가(春香歌)』 제81구에 최초로 나타난다. 그 후 송만재(宋晩載)가 1843년(헌종 9)에 쓴 『관우희(觀優戲)』, 조재삼(趙在三)이

1) 여기서는 신구서림본의 경우 신해진이 『역주 조선 후기 세태소설선』(월인, 1999)에서 교주한 것을 텍스트로 삼고, 국제문화관본은 정병욱이 교주한 『배비장전·옹고집전』(신구문화사, 1974) 수록본을 텍스트로 삼는다. 전자를 인용할 경우에는 쪽수만 표시하고, 후자를 인용할 경우에는 ‘신구문화사, ○쪽’ 식으로 명기한다.

1855년에 엮은 『송남잡지(松南雜識)』 권10 춘양타령조(春陽打詠條) 등에도 언급되었다. 특히 신재효(申在孝)의 「오섬가(烏蟾歌)」에는 제주 기녀 애랑이와 정비장의 이별 장면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배비장이 궤속에 들어가 조롱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배비장타령」이 구연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 방자가 배비장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목에서 「삼국지」·「수호지」·「구운몽」·「서유기」·「숙향전」 등의 고소설 제목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소설 「배비장전」은 19세기 중엽에 지어진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²⁾

「배비장전」은 조선조 한글소설 중에서 제주도를 주무대로 펼쳐지는 작품으로는 유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비장전」 연구는 대부분 풍자성과 해학성의 규명 등에 치우쳤고, 그 지역성에 주목한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고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현대소설의 그것에 비해 그 비중이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다. 고소설의 공간은 신화에 비해서는 현실적이지만, 인물과 플롯의 하위 요소로서만 기능함으로써, 구체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를 지니면서 인물과 플롯을 지배하기도 하는 현대소설에 비해서는 상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고소설의 공간이 작품 해명에서 무의미한 요소는 결코 아니다. 고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주목하면 작품을 좀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두껍게 읽어낼 수 있다.

말하자면 「배비장전」은, 일반적인 세태소설이나 풍자소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제주도를 중심에 놓고 읽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를 중심에 놓는 독법은 여러 가지 유의미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권순공은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³⁾에서 그런 연구

2) 여세주, 『남성취절소설의 실상』(국학자료원, 1995), 98~104쪽 신해진, 위의 책, 22~23쪽.

를 처음으로 시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필자도 권순공의 연구에 기대어 『배비장전』을 축제의 원천자료로 활용하는 방안³⁾에 대해 시론적 접근⁴⁾을 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배비장전』에 제주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배비장전』에 대해, 소설 텍스트로서 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데 비중을 두기보다는, 옛 문헌의 하나로서 제주도의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주목한 글이다.

II. 제주에 대한 인식

『배비장전』에는 제주도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잖이 산견된다. 우선 작품 앞부분에는 배경 공간으로서의 제주도에 대해 서술하는 가운데 애랑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

호남 좌도 제주군(濟州郡)은 동으로 일본 히협(日本海峽) 서으로 조선 협협(朝鮮海峽) 련화부슈 형국(形局)으로 남해(南海) 중에 돌출(突出)하니, 그 중에 한라산(漢拏山)은 도내(島內) 제일(第一) 명산(名山)이요, 탐라 고국(古國) 주봉(主峰)이라. 백천(百川)이 조종하고 만악(萬嶽)이 경수(競水) 하야, 산정신(山精神)수정기(水精氣)로 애랑(愛娘)이가 심겨났다.(245쪽)

호남 좌도(湖南左道) 제주군 한라산은 옛적 탐라국(耽羅國) 주산(主山)이요 남방도(南方島) 중 제일 명산이라. 험준하고 수려한 정기가 어리어서

3) 권순공,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반교어문학회, 2002), 49~61쪽.

4) 김동윤, 『제주소설의 문화콘텐츠화 방안—‘배비장전’과 ‘바람 타는 섬’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13집(영주어문학회, 2007), 111~129쪽.

기생 애랑(愛娘)이가 생겨났나 보더라.(신구문화사, 8쪽)

인용문에서 보면, 국제문화관본보다는 신구서림본에서 좀더 구체적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해협과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남해에 돌출한 섬이라고 제주도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련화부슈’(蓮花浮水) 형국이라 하여 제주도가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모양의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는 일개 군(郡)에 불과하지만 과거에는 탐라국이었음도 언급되었다. 이런 섬의 주봉인 한라산의 정기를 받아 애랑이라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났음이 강조되었다.

제주목사로 제수된 김경은 서강(西江) 사는 배선달에게 예방(禮房) 소임을 맡긴다. 이에 배비장은 주저하지 않고 제주로 떠나기로 작심하고서 대부인(大夫人; 배비장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제주에 대한 인식이 확인된다.

“팔도강산 명구승지(名區勝地)를 낫낫이 보았으되, 제주는 도중(島中)이라 시하에 이츠키 어려워서 지우금(至于今) 못 갔더니, 다행이 친흔 량반 제쥬 목스 제슈되야 도입길 써나면서 비장으로 가즈 흐니 흐 번 다녀오을 이다.”(246-247쪽)

배비장은 명구승지로 이름난 제주도에 가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벼슬을 얻어 ‘다행히’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의 경치 좋은 곳은 다 가보았던 배비장은 기회만 닿으면 제주도에 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도 제주도가 명승지로 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인은 “제주라 흐는 곳이 룡로(陸路) 천리, 슈로(水路) 천리, 이천 리 원정”(247쪽)임을 들어 반대한다. 험한 길을 떠났다가 돌아

오지 못할 수 있으니 부임을 단념하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풍광이 빼어난 곳이긴 하지만, 방문하기에는 매우 힘든 곳이라는 당대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배비장의 아내는 다른 이유로 만류한다. “제주는 도중이나 물식이 변화(繁華)하여 자립(自來)로 식향이라. 만일 그곳 가섯다가 주색(酒色)에 몸이 잠겨 회정치 못오면”(247쪽) 어찌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제주가 오래전부터 색향(色鄕)으로 알려졌다는 언급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제주가 본디 색향이었을까. 이는 제주가 절해고도여서 왕래가 어려운 곳이었던 점과 관련성이 깊다고 본다. 중앙에서 제주에 파견되는 관리는 처자를 두고 홀로 부임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⁵⁾ 책임기간 동안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그런 와중에 주변에 관기(官妓)들이 있었기에 외로운 처지의 중앙 관리들이 여색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양반가의 눈으로는 제주가 색향으로 인식될 여지가 많았던 것이지, 본디 색향이었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색향이라는 인식은 제주민중의 실제적인 삶과는 무관한 셈이다.

말하자면 『배비장전』의 뼈대인 남성취절담을 전개할 만한 최적의 공간이 제주였던 것이다. 배비장이 제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망월루에서 장황하게 펼쳐지는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 장면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정비장이 제주에서 근무하던 3~4년 동안 애랑과 연분을 맺었다가 헤어지게 된 상황인데, 이는 재회가 기약된 당분간의 이별이 아니라

5) 조선시대 수령의 임기는 60개월(5년)이 원칙이었고, 부임할 때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와 북쪽 변방인 강계·경원 등은 거리가 멀어 가족 동반이 어려웠고, 그런 만큼 임기도 30개월(2년 6개월)로 조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제주목사·정의현감·대정현감 모두 실제로 가족을 동반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휴머니스트, 2005), 167쪽.

사실상 더 이상의 만남이 차단된 완전한 이별이다. 정비장은 다시 제주에 오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애랑을 데리고 갈 수도 없다. 애랑이 정비장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처지다. 그래서 정비장은 “잘 잊거라, 나는 간다. 인제 가면 은제 보리? 너를 두고 가자 하니 거름거름 피가 되고, 너를 다려 가자 하니 시하 엄훈(侍下嚴訓) 어려웨라.”(257쪽)라고 하고, 애랑은 “살아서 못 볼 입을 죽어 환생(還生) 다시 볼가.”(272쪽) 하며 탄식하는 것이다. 그런 마당이니 정비장은 애랑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내어주게 되는 것이요, 애랑은 애정의 신표를 얻으려고 갖은 요구를 하였던 것이다. 물론 애랑에게는 그것을 구실로 재물을 뜯어내려는 의도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한편, 색향 운운 하는 부분과 제주도가 풍광이 빼어나면서도 가기 힘든 곳이라는 모자간 대화 부분은 복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주도가 예로부터 색향이라는 배비장의 아내의 언급은, 작품 전개를 고려할 때, 배비장이 애랑에게 미혹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선이 된다. 아울러 풍광이 빼어난 곳임은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며, 가기가 매우 힘든 곳임은 진실로 가까이 하기에는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Ⅲ. 제주 뱃길

육로 천리, 수로 천리, 이천 리 먼 길인 제주로 가는 여정에서 정말 힘든 것은 물길, 즉 뱃길이었다. 「배비장전」에서도 육로는 “찌는 맞침 방춘(芳春)이라. 리화(梨花), 도화(桃花), hing화(杏花), 방초(芳草), 양류(楊柳) 청청(靑靑), 록수(綠水) 잔잔(孱孱), 만산 화기경 조흔디, 사면을 둘러보며 산호금편 권마성에 가는 길을 지축호야 연로(沿路) 각읍(各邑) 중화 숙소(宿所), 강진·혁남 언듯 지나 혁남 관두 다다르니”(248

쪽)로 간단히 처리되었으나,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은 상세히 그려졌다.

배가 떠나는 곳은 전라도의 해남 관두⁶⁾다. 목사가 사공에게 “여기서 비를 타면 제주를 몇 시간에 가겠느냐?” 물으니 “일기(日氣) 청명(淸明)하고 서풍(西風)이 솔솔 부오면 순루로 돛을 달아 일일 너에도 가겠삽고, 중류에서 불헝헝야 초풍을 만나오면 안남·면턴 표박헝야 구미(歐美)에 가기도 쉽소며, 만일 다시 불헝헝면 쪽박 엮는 물도 먹고 고기 비[腹]에 이사(移徙)도 헝늬이다.”(248~249쪽)라고 답한다. 날이 좋으면 하루에도 가지만, 사나운 바람을 만나면 베트남·미얀마 쪽으로 표류하고 구미까지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고기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목사는 당일 내에 도달하면 중상(重賞)을 주겠다고 사공에게 말한다. 제주 뱃길은 그만큼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항로였다는 말이다.

마침 하늘이 편리를 도모하여 순풍이 부니 속히 승선하라는 사공의 말에 목사 일행은 크게 기뻐 섣뚱 배에 올라탄다. 목사 일행의 배는 마치 임시관아처럼 이러저러한 치장을 하고 있었다. 병풍을 겹겹이 둘러치고 돛자리가 깔렸으며, 비단에 수놓은 방석과 베개, 밝은 등과 화로 등을 마련해 놓았다. 게다가 목사가 있는 자리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도록 장막 밖에 하인들이 지켜 섰다. 이런 분위기였으니 목사는 “술 드러라. 먹고 놀즈. (…) 너도 먹고 나도 먹즈.”(250쪽)라며 취흥에 겨워 시를 주고받으며 즐긴다. 목사는 급기야 “누구셔 제주스비 타기가 어렵다 헝고? 지금 니가 실디(實地) 시험을 헝여 보니 유쾌헝기 혼량(限量)업다.”고 큰소리치기에 이른다. 사공이 이 말을 듣고는 겁에 질려, 작은 고개나 연못도 지키는 영신이 있으니 “이러흔 더해를 건너시며 취중 과담(誇談) 마옵소서.”(251쪽)라고 간한다.

6) 김상헌의 『남사록』(17세기 초), 이원진의 『탐라지』(1653), 『제주읍지』(18세기 후반) 등 여러 문헌에 ‘海南 館頭’, ‘海南 館頭梁’ 등이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 일행의 배는 험한 풍랑을 만난다. 미역섬⁷⁾을 지나 추자도(楸子島)를 다다르고 나서 다시 만경창과로 나아가는데 “히턴(海天)이 일식(一色)이오, 노도 경각(頃刻)에 풍우(風雨)가 더작(代作)”한다. 동서남북이 아득하여서 끝이 없는 상황에서 “집치 갖흔 큰 물결이 돌바위를 쿵쿵 부쉬 내며 바람을 짜라 여긔셔도 우리령 쌀쌀 저긔셔도 월랑월랑, 키다리 썩저져 용충줄·마루썩 동강, 고물이 번 듯 이물로 숙어지고, 이물이 번 듯 고물로 기우러져 덤병뒤썩 조리질흐니, 무인 절도(無人絶島)에 난파선(難破船)”(251~252쪽)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

급기야 목사는 용왕에 고사를 지내라고 사공에게 분부한다. 사공이 급히 음식을 마련하고 북을 울리며 “압길의 순풍(順風)을 인도흐샤 일선중(一船中) 스람이 무스이 제주성호(濟州城下)에 득달키를 천만복축(千萬伏祝)”(255쪽)하자 이윽고 달빛이 밝고 맑아지며 풍랑이 한 번에 멎었다. 그리고 어언간 순풍을 따라 제주섬에 도착했다. 이렇게 추자도를 지나면서부터 풍랑을 만나 고생한 점은, 전라도에서 추자도 사이의 바다에 비해 추자도에서 제주도 사이의 바다가 상대적으로 험난한 실제의 해상 사정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목사 일행이 배를 댄 곳은 제주섬의 어디인가. 신구서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제문화관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환풍정(喚風亭) 배를 내려 화북진(禾北鎭) 좌기(坐起)하고, 사면을 둘러보니 제주가 십팔경(十八景)이라. 제일경은 망월루(望月樓)였다.(신구문화사, 20쪽)

7) 251쪽에 ‘머역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미역섬’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추자도 주변에 미역섬이 있다. 312쪽에도 ‘미역’을 ‘머역’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원전의 오식으로 판단된다.

화북포에 있었던 환풍정⁸⁾이 나오는 점이라든지 화북진에서 공무를 시작했다는 언급을 보면 화북포(별도포)⁹⁾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사 일행은 해남에서 추자도 인근 해상을 지나 화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전임 목사 일행, 즉 정비장이 떠난 곳도 화북포로 보아야 한다. 김경 목사 일행이 화북진에서 첫 일을 보고나서 사방을 둘러보던 중 망월루를 접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망월루에서 애랑과 정비장이 이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으로 상황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망월루 역시 화북 쪽에 있는 누각인 셈이다. 기록상으로 망월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망양정(望洋亭)¹⁰⁾이나 영송정(迎送亭)¹¹⁾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 후반부에서 배비장이 동헌에서 봉욕을 당한 후, 목사에게 하직 인사하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처량한 모습으로 건다가 다다른 곳은 ‘조부진’으로 나와 있다. 전후 정황으로 미루어 조부진이 제주성의 밖임을 알 수는 있으나 딱 들어맞는 지명은 없다. 다만 조부진과 관련된 제주성 인근의 지명으로 ‘조부포(藻腐浦)’가 있어서,¹²⁾ 그 위치 추적

8)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9세기 중반)에 화북진에 대한 설명에서 “환풍정은 곧 객사이다, 숙종 기묘년에 목사 남지훈이 세웠다.(喚風亭卽客舍 肅廟己卯牧使南至薰建)”는 기록이 있다.

9) 이익태의 『지영록』(1694)에서는 화북포로 들어오고, 김대창의 『표해일록』(1689)에서는 화북포에서 출발한다. 이렇듯 화북포는 제주목의 주요 관문이었다. 안남 표해 기록인 김대창의 『표해일록』은 김봉옥·김지홍, 『옛 제주인의 표해록』(전국문화원연합제주도지회, 2001), 191~200쪽에 수록되어 있음.

10)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화북진에 대한 설명에서 “망양정은 북성 위에 있다.(望洋亭在北城上)”는 기록이 보인다.

11) 김정 목사가 몸소 돌을 운반하면서 축조한 화북포구의 방파제 위에는 영송정(迎送亭)을 건립하여 공사선(公私船)의 점검소(點檢所)로 삼았다. 『제주시의 옛터』(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135쪽.

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 조부포는 ‘듬북개’의 차자표기로, 조부연대(藻腐煙臺)가 있던 외도2동(연대동) 지경과 애월읍 동귀리 사이에 있는 포구를 말한다. ‘포’가 아닌 ‘진’으로 명기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애월진(厓月鎭)과 화북진(禾北鎭)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아무래도 듬북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하다.

또한 여기서도 배비장이 해남 가는 배를 얻어 타서 떠나기로 한 것을 보면 해남이 제주를 오가는 주요 뱃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히남(海南)”(318쪽)이라는 언급에서 보면, 해남이 물으로 나가는 주요 통로였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로 인해 해남과 제주가 통혼권(通婚圈)이었음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V. 제주의 풍광

목사 일행이 제주에 도착하고서 접한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평화롭게 그려진다. 아마 들던 바대로 명승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제주성허 다다르니 디세(地勢)도 조커니와 풍경도 아름답고, 초강(楚江)에 어부들은 고기 낚거 회를 치고, 던간(田間)에 농부들은 술 부어 권허면서 격양가 한 소리로 성은을 축원허야 련호만세(連呼萬歲)흔 연후에, 신관스도(新官使道) 구경코져 전후(前後)로 모혀 섰다.

목스 빙에 내려 사면을 살펴보니 란산잔록은 화명을 돌넌는 듯, 쥬륜취각은 반공(半空)에 소삿는 듯, 제일 명승 망월루(望月樓)(…) (256쪽)

12) 『탐라순력도』(1703)에서 조부포의 위치는 『비양방록』 그림에 도근천포(도그냇개)와 군량포(군량잇개) 사이에 명기되었다. 한편, 1700년대에 제작된 『호남전도』와 『전라남북여지도』에는 ‘藻腐浦’의 동쪽에 인접하여 동음의 ‘潮負浦’가 그려져 있다.

목사 일행의 제주에 대한 첫인상은 지세도 좋고 풍경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산은 그림 병풍을 두른 듯 푸르고, 곱게 단정한 누각은 하늘로 솟아 있다. 어부들은 고기를 낚아 회를 치고, 밭에 있는 농부들은 술을 주고받으면서 「격양가」를 부르는, 무척이나 평화로운 모습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은 목사 일행이 한라산에 꽃놀이 가는 장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한느산 중턱에 올라 스니 벽희(碧海)는 양양하고 대야(大野)는 망망이라. (….) 다시 점점 올라 가니 이도명춘으로 윈갓 시 우름 운다. 피꼬리 고기 고기, 백국시 백국백국, 할미시 가불갑죽, 접동시 으흥으흥, 여기셔도 쏘아, 저기셔도 프드득, 빅화산 제빅도가 이 산에 모다 뵈었다. 양류청청 느러진 가지, 벽계잔잔 호춘풍에 얼크러지고 뒤트러져서, 손[客]을 보고 읊[掛]을 하고, 명주분분 폭포수는 범중(范增)의 옥(玉) 부슈듯 와르르 광광, 로룡(老龍)이 잠을 찌고, 산곡(山谷)이 상응(相應)하니 해외(海外) 삼신 어디런고? (….) 경기를 살펴보니 영주(瀛州) 사면 푸른 물결 장턴일식 돌넛는디, 쌍쌍 백구(白鷗)는 물결 짜라 흘니 쓰고, 점점 어선은 돛을 달고 왕리하니 산수(山水) 춘풍(春風) 무한경(無限景)이 보든 바에 처음이라.(278~279쪽)

한없이 넓은 푸른 바다와 드넓고 아득하게 펼쳐진 들판은 한라산 중턱에서 보이는 기막힌 풍광이다. 더 올라가 숲으로 들어가면 온갖 새들이 울음 울고 계곡 물이 맑게 흐르며 폭포수도 보인다. 작품에 나오는 피꼬리·백국새·할미새(할미새사촌)·접동새(두견이) 등의 새들은 제주에서 모두 확인되는 조류들¹³⁾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비장전」이 어느 정도 리얼리티를 확문이다.

여기서 목사 일행이 간 곳은 ‘들렁궤(들렁귀)’, 즉 ‘방선문(訪仙門)’으

13) 박행신, 『제주의 새』(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참조. 다만 할미새의 경우 제주에서는 할미새사촌(분디새) 관찰되었다.

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천(漢川) 상류 약 6km 지점의 방선문은 한라산 계곡물이 바다로 뿜어가는 거대한 계곡으로, 영주10경 중 ‘영구춘화(瀛丘春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다.¹⁴⁾ 그러한 뛰어난 절경을 간직하고 있어 예로부터 제주에 부임한 목사와 육방관속이 봄이면 빠짐 없이 행차하여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¹⁵⁾ 홍중징, 김영수, 한정운, 이의겸, 한창유, 김치 등이 풍류를 즐기며 마애명을 남긴 곳이기도 하다. 이곳과 관련된 전설에서, 여러 선비들이 반석 위에 앉아 바둑을 두었는데 그 중 한 선비가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이곳에서 목욕하고 간다는 것을 알고 구경해 보려고 바둑시합이 끝나고도 혼자 남아 바위틈에 숨어서 선녀들의 몸매를 훑쳐본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은 “암상(岩上)에 독좌(獨坐)하야 남 노는 것 비양호”(279쪽)던 배비장이 푸른 숲 사이의 미인 애랑에게 반하여 “뒤쳐질 마음 두고 씨병으로 빚 알는다”(282쪽)며 남아서 애랑의 목욕 장면을 훑쳐보는 상황과 꺾 유사

14)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형승’ 편에서는 ‘들렁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주성 남쪽 15리에 있다. 한라산 북쪽이다. 물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가 매우 높다. 큰 돌이 아래로 드리워서 홍문을 이룬다. 그 가운데는 40~50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다. 양변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무성하여 숲을 이룬다. 꽃이 만발할 때에는 위 아래가 온통 붉다.”(『제주목 지지 총람』(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62쪽.)

15) 숙종 때 제주목사로 재임한 이익태는 『지영록』에서 8월 19일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다시 한라상봉을 올라가 보고 싶었다. 새벽이 지나자 서둘러 단기로 가다가 중대에 이르니, 흐리고 구름이 끼어 사방이 꼭 막혀 되돌아 장암곡(장암곡 속명 등념괴, 주: 들렁기, 영주10경의 하나로 영구춘화의 곳)으로 내려왔다. 두 개의 계곡이 모여 합쳐져 북쪽으로 흐르는데 샘의 돌이 청결하였다. 한 개의 커다란 돌이 언덕에 연결되어 골짜기 입구를 가로질렀는데, 가운데는 큰 구멍이 뚫려 마치 문과 같이 되어 있다. 철쭉과 단풍나무 등의 꽃들이 좌우에 번갈아 줄을 지었는데, 푸른 벽으로 된 언덕은 봄·가을에 놀러와 구경하기에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돌로 된 시내는 항상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 때도 잔원(潺湲, 주: 물이 졸졸 흐름)하며 소리를 내는 것을 못 보아 이것이 흙이었다.”(이익태 저, 김익수 역, 『지영록』(제주문화원, 1997), 61~62쪽.)

하다. 이는 『배비장전』의 무대가 방선문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듯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의 풍광은 이름답다. 그래서 배비장은 “내 본디 경성(京城)에 성장(生長)하야 팔도강산 명구승디(名區勝地) 아니 본 곳 업건마는 제주궤치 조흔 강산 보든 바 처음이요”(281쪽)라며 탄복한다. 제주의 풍광이 뛰어나다는 세간이 인식이 틀림없음을 직접 확인한 셈이다.

V. 목사의 행차와 관가 주변의 모습

『배비장전』은 중앙의 관리가 제주에 와서 겪은 일을 다룬 작품이므로 목사를 비롯한 경래관(京來官)의 행적,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는 관가 주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은 역사적 풍속의 재현이나 유적의 복원 등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사항이다.

우선 목사가 부임할 때의 동선을 살펴보자. 목사 일행의 이동 경로와 더불어 조선시대 제주목의 관가 주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영무정(永舞亭) 바라보고 산지(山芝)내 얼푹 건너 북수각(北水閣) 지나 놓고 칠성(七星)골 너른 길로 관덕정(觀德亭) 도라드러 전알전에 스풀(四拜)하고, 만경루(萬景樓)에 도입홀 제, 일읍(一邑)의 남녀 로소 구름갓치 구경혼다.(275쪽)

영무정(永舞亭) 바라보고 산지(山芝)내 얼푹 건너 북수각(北水閣) 지나 놓고 칠성(七星)골 너른 길로 관덕정(觀德亭) 돌아들 제 권마성(勸馬聲)은 새득하고 취타성(吹打聲)은 동지(動地)로다. 인민(人民)들은 갈담(噶談)하고 초목조차 굽히는 듯. 전알전에 사배(四拜)하고 만경루(萬景樓) 도림(到臨)할 제, 아이·남녀 노소 없이 신관 사또 구경이다.(신구문화사, 42쪽)

이렇게 인물들의 동선을 따라 제주의 모습이 픽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목사 일행은 화북포의 환풍정 인근에서 배를 내려 화북진에서 첫 공무를 이행하고(아마 입도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였을 것이다.), 망월루의 이별 장면을 보면서 제주성 쪽으로 향했다. 이어 영무정(연무정)¹⁶⁾을 바라보며 산지천을 건너고 북수각¹⁷⁾을 지나서 동문 안 대로를 거쳐¹⁸⁾ 칠성골의 너른 길로 관덕정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전알전¹⁹⁾에서 임지에 부임했음을 임금에 고하는 절차를 밟아 만경루(망경루)²⁰⁾로 올라섬으로써 부임의 일차적인 절차가 끝났다. 화북포·화북진·산지천·칠성골 등의 지명과 환풍정·영무정(연무정)·북수각·동문·만경루(망경루)·관덕정 등의 건축물들은 실제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배비장전』 속의 제주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공간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제의 장소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목사의 부임행차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다. 이 작품에서 그 장면은 비교적 장황하게 묘사되고 있다.

-
- 16) 영무정은 무사의 습사장(習射場)이었던 연무정(演武亭)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연무정은 처음에는 남문 밖 5리쯤의 광양에 있었으나 훗날 건입동 동쪽 지금의 제주 동초등학교 자리로 옮겼다. 영조22년(1746)에 한익중 목사가 동문 밖에 점지하여 개건하였는데, 정조4년(1780)에 김영수 목사가 증수하였고, 현종13년(1847)에 이의식 목사가 다시 증수하였다. 『제주시의 옛터』, 183~184쪽.
- 17) 선조32년(1599) 성윤문 목사가 부임하여 제주성을 크게 고쳤는데, 이때 남쪽 수구에는 겹 무지개다리를 놓고서 그 위에 제이각(制夷閣)을 세워 남수각(南水閣)이라 불렀고, 북쪽 수구에는 홀 무지개다리를 놓고 그 위에 죽서루(竹西樓)를 건립하여 북수각(北水閣)이라 불렀다. 김봉욱, 『증보 제주통사』(세림, 2000), 105~106쪽.
- 18) “동문(東門) 안 도로상(大路上)”(274쪽)이라는 표현이 있다.
- 19) 展調殿. 제주목관아에는 ‘영주관’이 있었다.
- 20) 望京樓. 명종11년(1556)에 김수문 목사가 세웠고, 현종9년(1668)에 이연 목사가 고쳐 세웠으며, 순조6년(1806)에는 박종주 목사가 다시 고쳐 세웠다. 『제주시의 옛터』, 171~173쪽.

신관 사또 구관 사또 인교(印交)하고, 새 사또 도입차로 들어간다. 구름 같은 전후 좌차(座次) 좌우 청장(左右靑帳) 번듯 들고 호들거러 들어갈 제 삼현수(三絃手)·취타수(吹打手)며 전배(前陪)·후배(後陪)·사령(使令)·군뢰(軍奴), 삼승(三升) 섭수·노랑 홍의, 남전대(藍纏帶) 눌러 띠고 인모전립(人毛戰笠)·우렁 상모(象毛)·굴깃 달아 날랄 용(勇)자 작게 붙여 쓰고 곤장(棍杖)·주장(朱杖) 번듯 들고 쌍쌍이 늘어서서, ‘에이찌룩 예이찌룩’ 좌우로 환화(喧譁)할 제, 물색 좋은 청일산(靑日傘)에 세악성(細樂聲)은 원근 산천 떠들럽게 ‘나나노 나노 뚜따 처르르.’/(...)/전알전에 사배(四拜)하고 만경루(萬景樓) 도림(到臨)할 제, 아이·남녀노소 없이 신관 사또 구경이다.(신구문화사, 40~43쪽)

구관은 인교디하고, 신관은 도입이라. 좌우 청장 번듯 들고 호기있게 드러갈 제, 전빅·후빅·사령·군로, 습승 섭수·노랑 홍의(紅衣)·남건디 눌러 띄고, 인모 전립·우렁 상모 날랄 용짜(勇字) 짝 부치고, 곤장·주장 번듯 들고, 쌍쌍이 느러서서 ‘에이짜루 예이짜루’ 훈금이 엄숙헌데, 청일산(靑日傘)하(下) 취타성이 원근(遠近) 산천(山川) 움작인다. ‘이나노 나노 뚜따 처르르.’

임무 잦은 고흔 기성, 나히 맞춰 골나 쏘아 물색(物色)으로 단장하야 동문(東門) 안 디로상(大路上)에 쌍쌍이 느러세고, 청도 한 쌍, 순시 두 쌍 오식 기치(五色旗幟) 찬란하고, 전빅 비장 디단 턴닉, 순은 장식 쇠금하야 가진 궁전 빗기 차고, 저모전립·밀화 피영·은입스 밍호슈 보기 조케 쏘즈 쓰고, 공쥬 면쥬 서머차를 가든하게 썰쳐 입고, 은안 빅마 호피 도듬 덩그러 케 놓히 안져 운종롱 풍종호로 서실있게 나아가니, 승피빅운 선인들이 이에 서 더홀소냐?(274~275쪽)

각양각색의 화려한 의상을 차려 입은 관리, 군병, 관노, 기생 등이 군기를 따라 흥겨운 풍악 연주에 맞춰 위엄 있게 행진하고 있다. 목사는 아마도 가마를 탔을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목사의 부임행차는 제주목사의 절대적인 권위를 말해준다. 제주섬은 약 900년 전까지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다. 서기 938년 탐라국이 고려의 속국이 되었다가(자치권은 행사하고 있었음), 1105년 탐라군으로 복속되면서 독립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때부터 중앙정부의 관리[京來官]가 파견되기 시작하였던바, 제주목사는 탐라국의 국왕과 같은 절대권력이었던 것이다. 부임 후에도 목사의 행차는 언제나 화려하였다.

룡두(龍頭) 식인 주홍(朱紅) 남여 호피 도듬 높이 타고, 전월 부월, 숨영 집스, 순시 령기(巡視令旗) 버려 세고 디로상(大路上) 나아갈 제, 록의 홍상(綠衣紅裳) 미색(美色)들은 빅슈 혼삼 놓히 들어 풍악(風樂) 소리 화답 하야, ‘지야즈 지야즈’ 만슈화림 깃흔 곳에 쫓도 갓고 식도 갓다.(278쪽)

위의 인용문은 목사 일행이 꽃놀이 갈 때의 장면이다. 목사는 용머리를 새긴 주홍색 가마에 호피를 깔아 높직하게 타서 문무 관리들과 기생들을 거느리고 깃발을 앞세워 풍악을 울리며 행차하고 있다. 이는 그 성격상 다소 다른 면은 있지만,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이형상 목사의 순력 행차와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이렇게 볼 때 「배비장전」은

21) 『탐라순력도』의 「정의조점」과 「대정조점」에 목사의 순력 행차가 그려져 있는데, 조성윤, 『「탐라순력도」로 읽은 제주도의 의례』, 『탐라순력도연구논총』(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354쪽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수십 명의 군사가 앞에서 행렬을 이끌고 있는데, 이들은 일부 군사를 빼고는 모두 활통을 뒤에 맨 채 말을 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전투 장비를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이끄는 지휘자는 말을 타고 있는데, 현감일 가능성이 높다. (...) 목사는 행렬 중간에 가마를 타고 있는데, 가마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즉 교군(轎軍)들이 앞뒤 두 명씩 모두 4명이 메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앞뒤 2마리씩 4마리의 말을 이용하고 있으며, 4명의 교군이 말고삐를 잡고 있는 형태이다. 가마에는 갓을 쓰고 목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 가마 바로 뒤에 말을 타고 따르는 세 사람의 복식이 군복이 아닌 것을 볼 때, 판관과 교수관, 또는 통역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뒤를 다시 수십 명의 군사가 따르고 있는데, 물론 향리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럼에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려 놓은 것을 감안한다면, 행렬은 적어도 100명이 넘는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목사의 각종 행차를 재현하는 데에도 유용한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VI. 경래관의 수탈과 제주인의 삶

배비장은 봉육을 당한 후에 애랑의 집에서 한 달 넘게 지내던 중 느닷없이 정의현감으로 임명된다. 김경 목사의 천거로 현감이 된 배비장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온다.

비현감(斐縣監) 정의(旌義)에 도입흔 후 치민선정(治民善政)하야, 거리거리 송덕비(頌德碑)를 세우고, 시화년풍(時化年豐)하며 산무도적(山無盜賊)하고 야불폐문(夜不閉門)하니, 표궤(褒貶)에 상등(上等)이오 정치(政治)에 거갑(巨甲)이라.(327쪽)

태평하고 곡식이 잘 되어 산에 도적이 없고 밤에 대문을 닫지 않고 지낼 정도로 수령 노릇을 잘 하여 거리마다 송덕비가 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시대 제주에 파견된 목민관들 중에서 선정을 베푼 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위에 인용된 부분은 해피엔딩을 위한 의례적이고 자동적인 서술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주민중의 처지에서 볼 때 경래관들은 대부분 수탈자였다. 『배비장 전』에서 수탈자로서의 경래관의 모습은 애랑과 정비장의 이별 장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비장의 ‘뱃집’²²⁾이 바로 경래관의 행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정비장이 애랑에게 풀어주는 뱃집의 품목들은 다음과 같이 아주 많다.

22) 정병욱은 ‘배집’으로 읽고 “베를 쌓아 놓은 집”으로 교주하고 있으나(신구문화사, 21쪽), 신해진 교주본에서는 ‘비집’(259쪽)으로 나왔듯이, 뱃집으로 보아야 옳을 것 같다.

중량(中凉) 한 통, 세량(細凉) 한 통, 당건(宕巾) 한 죽, 우황(牛黃) 열 근, 인삼(人蔘) 열 근, 월자(月子) 서른 단, 마미(馬尾) 백 근, 장피(獐皮) 사십 장, 녹피(鹿皮) 이십 장, 홍합(紅蛤)·전복(全鮑)·해삼(海參) 백 개, 문어(文魚) 열 개, 삼치 서 못, 석어(石魚) 한 통, 대하(大蝦) 한 통, 장곽(長藿)·소곽(小藿) 다시마 한 통, 유자(柚子)·백자(柏子)·석류(石榴)·비자(榲子)·청피(靑皮)·진피(陳皮)·용(茸), 열레·화류(樺榴)살짝·삼층난간용봉장(三層欄干龍鳳幟)·이층문갑(二層文匣)·가계수리·산유자(山柚子)케·뒤주 각 여섯 개, 걸음 좋은 제마(濟馬) 두 필, 총마(驄馬) 세 필, 모시 다섯 필, 면주(綿紬) 세 필, 간지(簡紙) 열 축, 부채 열 병(柄), 간필(簡筆) 한 통, 초필(草筆) 한 통, 연적(硯滴) 열 개, 실대 열 개, 쌍수복 백동(雙壽福白銅)대 한 켜레, 서랍 하나, 남초(南草) 열 근, 생청(生淸) 한 되, 숙청(熟淸) 한 되, 생울(生粟) 한 되, 마늘 한 접, 생강 한 되, 나미(糯米) 열 섬, 황육(黃肉) 열 근, 후추 한 되, 아그배 한 접(신구 문화사, 22~24쪽)

중량 혼 통, 세량 혼 통, 당건 혼 죽, 우황 열 근, 인삼(人蔘) 열 근, 월즈 빅 기, 마미 빅 근, 장피 십 장, 록피 오 장, 홍합(紅蛤)·전복(全鮑)·희삼(海參)·문어(文魚) 갓드려서 일빅 기식, 습치 서 못, 석어 혼 통, 장곽·소곽·다시마 묵근 차로 각 두 동식, 디하 혼 케, 유즈(柚子) 열 케, 빅즈 두 말, 진피 빅 근, 삼층난간룡봉장·이층 문갑·각계수리·빅목·세포·물면쥬 지인더로 내여 노코, 거름 조흔 제마 이 필, 은안금편 가촌돈더로 급피 푸러 내여쥬고, 간지 빅 축, 붓치 빅 병, 심지어 싱강·마늘·겨자·호초·썩갓·부초·간장·된장·김치·쌈독이, 먹다 남은 과즈썩썩지 잇는 것이 라고는 모다(259~260쪽)

두 판본에 나오는 뱃짐 품목들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품목들은 바로 공납(貢納)으로 바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중량·세량 등의 양태, 당건, 말총, 전복, 해삼, 미역, 다시마, 유자, 비자, 청피·진피 등의 골집질, 노루가죽 등의 품목들은 제주특산²³⁾이었음이 확실하므로, 정비장의

뱃짐을 진상품과 같은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아울러 사슴가죽, 녹용, 꿀 등도 제주의 진상품이었다.²⁴⁾ 목민관 이하 관리들이 진상제도를 남용해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기회로 도구화하는 등의 폐단이 심했으니, 서울로 떠나는 정비장의 뱃짐은 곧 사육을 채우는 양반 관리들의 수탈 품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²⁵⁾

경래관들은 제주에 올 때부터 한몫을 단단히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나는 형세가 가난하여, 제주가 양태 소산(所産)이라, 양태 동이나 얻어다가 가용(家用)에도 쓸 것이요, 우리 마누라 속곳이 없어 한 벌 얻어 입힐까 하고 나왔더니”(신구문화사, 17쪽)라는 비장의 말에서 보면, 제주가 양태 특산지여서 그것으로 가게 수입을 올려보려는 심사였음을 읽을 수 있다.

김경 목사 일행이 제주에 들어오는 장면에서 보면, “술 부어 권호면서 격양가 한 소리로 성은을 축원호야 련호만세(連呼萬歲)”(256쪽)를 하였다고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주인의 삶은 『격양가』와 거리가 멀다. 후반부에 “히도중(海島中)이라는 데는 춤 못 살

23) 여기서 제주의 특산과 관련하여 국제문화관본 계열의 교주와 해석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애랑이 배비장에게 준 음식에서 “감에 이빨 자국”, “감 꼭지”(신구문화사, 63쪽)와같이 명기되어 있는바, 이는 제대로 교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감은 ‘柿’가 아니라 ‘柑’으로 감귤류를 말하는 것인데, 한글로만 ‘감’으로 표기하고 별다른 교주를 하지 않으면 ‘柿’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원진의 『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임제의 『남명소승』 등에도 나오는 ‘柑’과 ‘柑子’는 감귤류다. 신구서립본에서 “제주소산감유즈(濟州所産甘柚子) 설당(雪糖) 뿌려 지여 노코”(289)라거나, “감(柑)”, “감즈(柑子)”(290쪽)로 명기된 것을 보면 그것이 감귤류임이 명백해진다. 청소년용으로 다시 씌어진 『배비장전』인 권순공, 『절개 높다 소리 마오. 벌거벗은 배비장』(나라말, 2007), 73쪽에도 ‘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4) 박찬식,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98~116쪽.

25) 권순공,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앞의 책, 58~60쪽.

곳이로구.”(317쪽)라며 탄식하는 배비장의 말에서도 제주도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평화로운 고장이 아니었음이 감지된다.

『배비장전』의 등장인물 중 제주사람으로는 애랑, 방자, 해녀, 사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제주인의 삶의 양상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면서 각기 처한 입장에서 경래관들의 행태를 풍자한다. 우선 제주의 해녀에 대한 묘사를 보자.

별안간 물 속으로 거무수름흔 물건 흐느히 털병털병 느오는지라, (...) 귀신은 아니요 물 속에 드러가 전복 짜 가지고 나오는 계집이라. 머리는 다방 나룻 비슷, 몸은 물씨가 올라 솟검정 한가지 모양인데 발가버튼 몸에 계집흔 폭탄 말지갈 먹이듯 잔득 츠고 나오는 체격은 처음 보는 스투름은 누라 할 것 업시 기급질색(氣怯窒塞)을 흐겠더라.(316쪽)

인용문은 배비장이 동헌 마당에서 봉육당한 후에 제주를 빠져나려고 배를 구하려다가 해녀를 만난 대목의 한 부분이다. 검은 피부색을 가졌으며 기겁하여 질색할 정도의 모습을 했다는 표현에서 제주해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녀가 “오리지 아니흐야 우리 집 남정네가 물 속에서 전복 짜 가지고 나오게 되면”(317쪽)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과거 제주도에서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물질(나잠어로)’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량반 량반 무슨 량반이야 형금이 조와야 량반이지, 량반이면 남녀유별(男女有別) 레의염치(禮義廉恥)도 모르고 남의 녀인네 발가벗고 일흐는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씨락이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初面)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춤 듯기 실쿤, 어서 가소.”(317쪽)

26)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07~136쪽에는 ‘포작(鮑作)’으로 불린 제주 남성의 물질에 대한 역사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다.

양반이라고 뭐 대수냐는 투의 발언이다. 해녀가 양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배비장은 해녀에게 봉변당한 후 사공을 만난다. 배를 구하려고 사공에게 반말을 하자, 사공은 그것에 비위가 뒤틀려 “어, 스공은 왜 츠져”라고 하는가 하면 어디 가는 배냐는 물음에도 “물로 가는 비여”(318~319쪽)라고 되받아친다. 여기서의 냉소는 경직함을 넘어서 대상에 대한 증오와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배비장 개인에 대한 풍자가 아니라 배비장을 포함한 양반사회 혹은 제주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풍자가 된다는 것이다.²⁷⁾ 경래관에 대한 제주인의 비판적 인식의 발현인 셈이다.

방자와 배비장의 신분적 대립을 주목해 보면 방자의 시각이 제주도민의 그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래 서울 양반들, 양반 자세(藉勢)하고 계집이라면 체면 없이, 욕심낼 데 아니 낼 데 분간 없이 함부로 덤병이다 봉변도 많이 당합디다.”(신구문화사, 58쪽)라는 방자의 발언은 제주사람들의 중앙과 양반층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당 역시 방자와 마찬가지로 배비장을 풍자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가한다. ‘구대정남’을 ‘배걸덕쇠’로 전락시키고, 거문고로 만들어 조롱하고, 업케신으로 만들어 나체로 동헌 마당을 뒹굴게 만든다.²⁸⁾

이처럼 작품의 내면에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공분의 모습을 주목할 수 있는바, 이는 당시 전개된 수탈의 양상과 관련이 있다. 해녀와 사공은 수탈구조의 밑바닥에서 희생된 이들이었고 그들의 풍자가 냉소적임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점으로 인해 1862년에 제주에서 일어난 임술민란(壬戌民亂)이 19세기에 생산된 『배비장전』과 상관성을 지닐 것이라는 권순공의 추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본다.

27) 권순공,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앞의 책, 56~57쪽.

28) 위의 논문, 51~56쪽.

VII. 마무리

지금까지 「배비장전」이 제주도를 주무대로 삼은 소설임에 주목하여, 제주도가 작품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고찰한 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사람들은 명승지이지만 방문하기는 매우 힘든 곳으로 제주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부임 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는 조건 때문에 중앙 양반가에게는 색향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제주도가 「배비장전」과 같은 남성쇄절담을 전개할 만한 최적의 공간이 되었다.

둘째, 「배비장전」에는 해남 관두에서 출발하여 추자도를 지나면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다가 화북포의 환풍정 쪽으로 들어오는 뱃길이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특히 해남의 경우 통혼권일 정도로 한반도를 오가는 주요 관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목사와 배비장 일행이 제주에서 접한 풍광은 매우 아름답고 평화롭게 그려졌다. 그들이 꽃놀이를 갔던 한라산 중턱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제주시 오라동의 방선문(들렁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넷째, 화북으로 들어와 영무정(연무정) 바라보며 산지천을 건너고 북수각을 지나서 동문 안 대로를 거쳐 칠성골의 너른 길을 통해 관덕정으로 들어서고 만경루(망경루)에 올라서는 목사 일행의 동선을 보면 지명과 건축물들이 실제와 일치한다. 부임행차와 함께 꽃놀이행차도 아주 화려하게 그려졌다.

다섯째, 정비장의 뱃짐은 사육을 채우는 경래관의 수탈 품목으로 볼 수 있으며, 애랑·방자·해녀·사공 등 제주인들은 그런 수탈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분하였고 냉소적 풍자를 하였다. 이런 소설의 상황은 19

세기의 제주민란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배비장전』 속의 제주도라는 공간은 상투적으로 막연히 제시된 추상적인 공간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작품 속의 여러 상황과 지명·건축물 등에서 나름대로 리얼리티가 확보되어 있음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고소설의 경우도 지역의 눈으로 읽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음도 입증되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순궁,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 _____, 『절개 높다 소리 마오. 벌거벗은 배비장』, 나라말, 2007.
- 김동윤, 『제주소설의 문화콘텐츠화 방안—‘배비장전’과 ‘바람 타는 섬’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13집, 영주어문학회, 2007.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 _____. 김지홍,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1.
- 김상헌(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 김천형 편저, 『탐라사료문헌집』, 디딤돌, 2004.
- 이형상·김태길, 『탐라순력도(영인본)』, 제주시, 2002.
- 박찬식,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_____,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2006.
- 박행신, 『제주의 새』,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 신해진,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 여세주, 『남성훼절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 이원진, 『탐라지』(1653); 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이익태, 『지영록』(1694); 김익수 역, 『지영록』, 제주문화원, 1997.
- 정병욱 교주, 『배비장전·옹고집전』, 신구문화사, 1974.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목 지지 총람』, 2002.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의 옛터』, 1996.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 지도』, 1996.
- 조성운, 『『탐라순력도』로 읽은 제주도의 의례』,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Abstract

Jeju Island Appearing in '*Baebijangjun*'

Kim Dong-yun*

With focus on the fact that, among novels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during the Josun period, *Baebijangjun* is the only one whose main setting is Jeju Island, this piece explores in detail what and how it depicts. As a result, it gives a clear picture of Jeju Island: the contemporary conception of Jeju Island, rough waterway conditions, accounts of Jeju's beautiful scenery, the picture of Governor's visits, the picture around Governor's office, the exploitation of officials from the mainland, and Jeju people in dire situation. This study reveals that in *Baebijangjun*, Jeju Island is not an abstract space. It secured reality through a variety of situations, place names, and structures.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also in the case of ancient novels, fresh and original interpretation can be drawn by reading with regional eyes.

Key Words

'*Baebijangjun*', Jeju Island, waterway, Governor's visit, officials from the main land, exploit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 김동윤 주소 : 제주도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kdongyun@hanmail.net 전화: 064-754-2711)

최종 투고일 : 2007. 6. 25.

최종 접수일 : 2007. 7. 31.

K C I